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0. 2.(금)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어르신들 위한 특별행사, 수상자와 가족 등 400여 명 초청 -
- 100세 어르신 6명 청려장 전달, 노인복지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포상·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오전 11시 더그랜드롯데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국가발전에 헌신해오신 어르신들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노인복지법상 법정기념일, '97.8월 제정)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근 대한노인회 회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30회를 맞은 노인의 날 기념식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에는 대통령 내외가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692명 중 여섯 분을 초청하여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장수지팡이)과 축하 카드를 직접 전하였다.

- * 청려장 : 명아주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장수의 상징적 의미 통일신라 때부터 임금이 하사

또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 규모가 확대되고, 노인복지 시설과 종사자 등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포상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난 230명의 유공자에게 수여되었다.

* 국민훈장 4명(+2), 국민포장 4명(+2), 대통령표창 30명(+15), 국무총리표창 37명(+18), 장관표창 155명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종삼 사회복지법인 갈릴리사랑의집 대표이사는 경남 거제 최초 무료 양로원을 설립하고 요양, 재가, 통합돌봄 등 전문 복지 시설을 마련해 지역 내 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해 온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도 앞장서는 등 27년간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박용열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장은 21년간 지역 내 다수 노인복지관 신축, 250여 개소 지능형(스마트)경로당 구축, 30여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노인복지 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훈자로 선정되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송길원 사단법인 하이패밀리 대표이사는 28년간 사전장례의향서, 장례희망교육 등 존엄한 생애 말기 준비 캠페인, 자연장 등 친환경 장례문화로의 전환, 생전장례식 등 가족 중심 추모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박공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장은 전국 최초로 지회에 평생교육부를 설치하고, 노인대학 운영 및 경로당 시설개선, 어르신 놀이터 조성, 노인체육회 창단 등 노인 권익 신장과 여가문화 확충,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경제,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헌신 덕분이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겠다” 라며, “아울러 노인이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이 노인을 공경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이종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참여

확대에 앞장서겠다” 라고 하였다.

- <붙임> 1.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요
2. 노인의 날 및 청려장 연혁
 3. 청려장 증정
 4. 정부포상 유공자 및 주요 공적 내용
 5. 2026년 주요 노인복지정책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044-202-3470
		담당자	사무관	선수정	044-202-3484
	대한노인회 기획운영본부	책임자	본부장	강희성	070-7864-7829
		담당자	팀 장	강연호	070-4861-6410



붙임 1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요

- ☐ (행사명)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 ☐ (목적)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에 대한 감사 및 격려
- ☐ (일시/장소) 2026년 10월 2일(금) 11:00~13:00, 더그랜드롯데 서울
- ☐ (참석 대상) 400여 명
 - 노인정책 유공자, 정부·국회 및 유관기관
 -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독거노인 등
- ☐ (주요 내용)
 - 노인강령 및 경로헌장 낭독
 - 100세 어르신 6분께 대통령 내외 청려장 및 축하카드 증정
 - 노인의 날 유공자 포상
 - * 전체 유공자 230명(훈장 4명, 포장 4명, 대통령표창 30명, 국무총리표창 37명, 장관표창 155명) 중 훈장(4), 포장(4), 대통령표창(2) 시상
-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 (사)대한노인회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포스터



□ **노인의 날 연혁**

- 1991년 UN, 매년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
-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노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97.5)
-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법적근거 마련('97.8)

□ **청려장 [장수지팡이]**

- (의미) 청려장(靑藜杖, 푸를 청(靑), 명아주 려(藜), 지팡이 장(杖), 장수지팡이)
 -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서, 본초강목 등 의서에 중풍예방,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기록
 -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하사한다고 하여 '국장(國杖)', 80세가 되면 임금님이 내린다고 하여 '조장(朝杖)'으로 칭하여 하사(삼국사기, 경국대전)
- (지급대상) 주민등록상 100세인 노인과 주민등록과 상이하나 실제 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 * ('26년) 2,692명(남 492명, 여 2,200명) / ('25년) 2,568명(남 499명, 여 2,069명)
- (지급) 「노인의 날」 행사 시 대표자에게 증정, 그 외는 시도에서 전달
- (지급전례) 1993년부터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100세 어르신에게 증정

< 청려장 모습 >



□ **어르신 명단**

성 명		인 적 사 항
김영도 어르신		○ 평안남도 강서 출생(1926. 3) ○ 장수비결: 매일 산책하며 소식
강소하 어르신		○ 황해도 해주 출생(1926. 7) ○ 장수비결 : 평소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
김순기 어르신		○ 황해도 장연 출생(1926. 9) ○ 장수비결 : 산책 통해 건강 관리,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것
최광주 어르신		○ 대구광역시 출생(1926. 10) ○ 장수비결 : 정해 놓은 일정대로 하루를 보내시고, 매일 산책, 채식 위주 식사
이교만 어르신		○ 강원도 화천 출생(1926. 12) ○ 장수비결 : 채식 위주의 식사, 소식
박귀남 어르신		○ 전라남도 고흥 출생(1926. 12) ○ 장수비결 :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생활

붙임 4

정부포상 유공자 및 주요 공적 내용

□ 포상 현황

- (대상) 노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 수여
- (포상내용) 훈·포장(8명), 대통령·국무총리 표창(67명), 장관 표창(155명)

훈격	포상내용	부상품	현장 수여
○ 국민훈장 목련장 (4명)	▷ 훈장증, 휘장	대통령 시계	4명
○ 국민포장 (4명)	▷ 포장증, 휘장	"	4명
○ 대통령 표창 (30명)	▷ 표창장, 휘장 또는 수치	"	2명
○ 국무총리 표창 (37명)	▷ 표창장, 휘장 또는 수치	국무총리 시계	-
○ 장관 표창 (155명)	▷ 표창장	복지부 장관 시계	지방정부 전수

□ 주요 정부포상 유공자

훈격	성명 등	소속·직위 (수공기간)	주요 공적
국민 훈장	 이종삼 (56년생)	사회복지법인 갈릴리사랑의집/ 의료법인 성녀의료재단 대표이사 (27년)	■ 지역 노인복지 발전에 헌신하며 거제 최초 무료양로원을 설립하고 노인요양·재가·통합돌봄 등 5개 전문 복지시설을 구축·운영, 지역 노인복지 기반 마련 ■ 민·관·산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돌봄과 보건·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교육·의료·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
국민 훈장	 박용열 (38년생)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 회장 (21년)	■ 노인복지관 신축,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조직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복지 기반 조성 ■ 스마트경로당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 취업지원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기여 ■ 노인정책 제도개선과 노인회보 발간, 각종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노인 권익 향상
국민 훈장	 송길원 (60년생)	사단법인 하이패밀리 대표이사 (28년5월)	■ 임종장례문화를 가족 중심의 생명존중 문화로 전환하는데 헌신, 사전장례의향서·장례희망교육·엔딩파티 등 존엄한 생애말기 준비 문화 확산 ■ 자연장·친환경 장례, 추모 중심 장례문화, 고독사·생전유품 정리 운동 등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장례문화 개선 선도, 임종 돌봄과 가족치유기반을 마련 ■ 생명존중 교육 및 공익활동을 통해 고령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가족 중심의 애도문화 정착에 기여
국민 훈장	 박공규 (50년생)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공주시지회 회장 (50년)	■ 전국 최초 지회에 평생교육부 설치 운영,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 입식화, 대한민국 1호 어르신 놀이터 조성 등으로 노인의 권익 신장과 여가문화 기반 확충 ■ 경로당 무상급식과 급식도우미 지원, 노인회관·경로식당 건립, 노인일자리사업, 스마트경로당 및 IoT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훈격	성명 등	소속·직위 (수공기간)	주요 공적
			통해 돌봄·복지·안전 서비스 강화 ■ 전국 최초 부설 노인체육회 창단과 제1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성공 개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10여 개 봉사클럽 674회 11,803명 활동) 등 조직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선도
국민 포장	 송세광 (39년생)	김해시 복지재단 진료원장 (22년3월)	■ 2004년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상근 전문의로 임용된 이후 22년간 연간 1,400회, 연인원 1만8천여 명을 진료하며 노인 의료복지와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헌신 ■ 치매예방사업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복지관 간 연계진료를 주도하여 의료·복지 통합돌봄 모델을 선도,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활동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국민 포장	 강희성 (57년생)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총무행정 지원본부장 (29년)	■ 29년간 노인복지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로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총괄, 전국 248개 취업지원센터 정보화 구축과 연 2만 명 이상 노인 취업 지원을 통해 노인 소득보장과 민간취업 기반 조성에 기여 ■ 전국 경로당 운영지원체계 구축, 지도자강사 양성 스마트경로당 모델 개발, 노인 전문도서 보급 및 다양한 여가·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경로당을 지역사회 노인복지 거점으로 발전 ■ 장기요양위원회 등 정부 정책 자문, 효문화 확산, 후학 양성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하며 국가 노인복지 정책 발전과 경로 효친 문화 확산, 노인권익 증진 기여
국민 포장	 임세규 (59년생)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38년6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2년간 재직하면서 건강백세운동 교실 등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과학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 서울시연합회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사회참여 확대 및 디지털 교육 등으로 어르신 복지와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반 강화 ■ 경로당 활성화, 조직운영 안정화, 국내외 협력 및 세대 통합 사업 추진
국민 포장	 은성호 (58년생)	산정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 (24년)	■ 2002년부터 명절마다 백미(10kg) 30~60포 및 성금 50~100만원을 지원하고, 월 5포 정기후원 등 지속적인 나눔으로 취약계층 지원 ■ 각종 후원 및 봉사로 경로행사, 김장나눔, 반찬지원, 방역활동, 해외구호사업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전개,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리더로서 복지 거버넌스 강화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

- **[간병/돌봄]** 통합돌봄과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로 아프거나 노쇠해도 걱정없이 돌봄-간병 받으실 수 있는 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26.3월~)으로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평소 살던 집에서 방문형 의료, 돌봄, 병원동행 등 서비스를 받으며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
 - 요양병원 중증환자 대상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우수한 간병서비스를 적정 부담으로 제공('27년부터 시범적용 후 단계적 확대)
 - 의료·요양·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 지역에 공립 돌봄센터(취약지돌봄센터) 설치·운영('27년 ~ , 30개소)
-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인일자리 118만 개('27년)로 역대 최대 편성
 -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제도 개선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추진('27.4월~)
 - * **(부부감액)**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0~45%) 감액비율 10%로 축소, 총 234만 명
 - ** **(직역연금)**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 명
 - 노인일자리 118만 개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안전전담인력 780명 추가 배치 등)로 사회 참여를 통한 활력 제고 및 노후소득 지원
- **[안전/안심]** 독거노인 등 가정 내 응급상황 대처 지원을 위한 ICT 장비 설치 확대('26년 29.7만 개 → '27년 31.7만 개) 및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도입('26.4.~)
- **[문화/여가]** 시니어 관광 활성화 사업,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어르신 전문 스포츠센터 조성 등 통한 어르신 문화/여가 인프라 지속 확충